

1번 문제 해설

정답: ⑤

출제 의도: 지문 전체 내용을 통해 환위험 관리와 관련된 주요 개념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해설:

- ① (적절함)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헤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은 성립 시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헤지 계약상의 의무도 계약 성립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원리에 부합한다.
- ② (적절함) 2문단 첫 문장에서 "기업의 재무 위험은 다양한데"라고 언급하며, 환율 변동 위험 외에도 여러 재무 위험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 ③ (적절함) 3문단에서 첫 번째 유형으로 설명된 '내부적 관리 중심의 헤징'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금 흐름을 조정하고(네팅의 예시처럼 "본지사 간 이를 통합 상계하기로 합의하면"), 그 실행 방식이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 ④ (적절함) 1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기업이 환위험을 @인식하고 헤징을 실행하면 환노출에 따른 위험은 통제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통제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완화되거나 관리됨을 의미한다.
- ⑤ (적절하지 않음) 5문단 첫 문장에서 "만약 제3자가 고의나 과실로 기업이 체결한 헤징 계약의 효과 실현을 방해했다면 해당 기업은 그에 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불법행위 책임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번 문제 해설

정답: ③

출제 의도: 지문에서 제시된 ㉠의 사례를 통해 일상적 '환전'과 전략적 '헤징'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해설:

- ㉠은 "해외여행을 위해 미리 돈을 바꾸고 외화를 확보하는 것"으로, 2문단에서 "일상에서 환전이라고 할 때와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헤징은 구별된다."라며 ㉠을 헤징이 아닌 환전의 예로 들고 있다.
- ① (적절하지 않음) ㉠은 단순한 외화 매입 행위이지, 미래의 특정 환율로 거래할 권리(옵션)나 그에 대한 대가(프리미엄)를 지불하는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가 아니다.
- ② (적절하지 않음) ㉠은 미래의 특정 지출을 위한 단순 환전 행위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위험 관리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지문은 ㉠을 전략적 위험 관리의 범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적절함) ㉠은 미래의 해외여행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외화를 미리 확보(환전)하는 행위이다. 즉, 환전이라는 거래는 현재 실행되지만, 그 외화의 사용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다. 이는 2문단의 설명, 즉 ㉠이 헤징이 아닌 환전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 ④ (적절하지 않음) 환전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외화 매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계약 없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⑤ (적절하지 않음) ㉠은 그 자체로 외화 매입(환전)이라는 계약이 완료된 것이지, 미래에 외화를 매입할 수 있는 '헤지 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확보한 것이 아니다. 2문단은 ㉠을 전략적 헤징과 구분하고 있

다.

3번 문제 해설

정답: ③

출제 의도: 3문단(A, B)에 제시된 두 가지 헤징 유형(내부적 관리 중심 헤징, 파생 상품 계약을 통하는 헤징)의 준비 단계 내용과 실행 단계 효과/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해설:

- ㄱ (내부적 관리 중심 헤징의 준비 단계 내용): 3문단에 따르면, 네팅은 "본지사 간 이를 통합 상계하기로 합의하면 '네팅'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준비 단계의 내용은 이러한 내부적 합의, 즉 '내부 상계 조건 명문화'로 볼 수 있다.
- ㄴ (파생 상품 계약을 통하는 헤징의 준비 단계 내용): 3문단에서 선물환 계약은 "기업이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헤지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헤지 계약 성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은행과의 조건 합의 과정이 포함됨을 의미하므로 '선물환 계약 조건 합의'가 적절하다.
- 참고: '없음'은 원본 문제의 '예약 완결권' 유형에서 파생된 선택지 요소일 수 있으나, 선물환 계약은 쌍무계약으로 조건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준비 단계의 내용'으로 더 구체적인 '선물환 계약 조건 합의'가 적절하다.
- ㄷ (내부적 관리 중심 헤징의 실행 단계 효과/내용): 3문단은 네팅의 결과로 "각 부서가 외화 자금을 차감 정산하고 잔액만 결제"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환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외화 자금 순액 정산'이 실행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선택지 분석:

- ① ㄷ이 '외화 자금 총액 결제'로 틀렸다.
- ② ㄴ이 '없음'으로 제시되었으나, '선물환 계약 조건 합의'가 더 적절하다.
- ③ ㄱ ('내부 상계 조건 명문화'), ㄴ ('선물환 계약 조건 합의'), ㄷ ('외화 자금 순액 정산')이 모두 지문의 설명과 가장 잘 부합한다.
- ④ ㄱ이 '없음'으로 틀렸다.
- ⑤ ㄷ이 '외화 자금 총액 결제'로 틀렸고, ㄱ도 '없음'으로 틀렸다.

4번 문제 해설

정답: ②

출제 의도: <보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에 지문 4문단(계약 불이행 책임)과 5문단(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해설: <보기>는 을 은행(계약 상대방)의 잠재적 계약 이행 문제와 병 회사(제3자)의 고의적 불법행위가 결합된 상황이다.

- ① (적절함) ㉠(갑의 손해) 발생에 을 은행의 과실이 있다면, 을 은행은 4문단에 따라 갑 기업에 대해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진다. 병 회사는 고의로 악성 루머를 퍼뜨려 갑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으므로 5문단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② (적절하지 않음) 5문단 마지막 두 문장에 따르면 "다만 헤징 실행 기업에게 계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보전될 손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을 은행이 갑 기업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갑 기업이 입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병 회사의 배상 의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 회사의 ... 채무는 별개로 존속한다'는 진술은 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적절함) 5문단에 따라 병 회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을 은행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을 은행의 면책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병 회사의 책임은 성립할 수 있으며, 을 은행 역시 면책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적절함) 을 은행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4문단에 따라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병 회사의 행위는 5문단에 따른 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은행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병 회사는 갑 기업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질 수 있다.

⑤ (적절함) 5문단 마지막 두 문장의 원리에 따라, 갑 기업이 병 회사로부터 손해 전액을 배상받았다면, 그 손해는 이미 보전된 것이므로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을 은행에게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5번 문제 해설

정답: ④

출제 의도: 지문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중소 수 출입 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 정책(안)'의 각 조항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적절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지, 특히 지문의 핵심 원리들과 정책 내용을 정확히 연결하여 비판적 또는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해설:

① (적절한 의견) <보기>의 제1조(목표: 환위험 인식 제고 및 관리 능력 향상)와 제2조 1항(교육 및 컨설팅 지원)은 지문 1문단의 "기업이 환위험을 @인식하고 헤징을 실행하면"이라는 내용과 부합하며, 2문단의 전략적 '헤징' 및 3문단의 다양한 '헤징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적절한 의견) <보기>의 제2조 2항(네팅 장려)과 3항(선물환 계약 지원)은 지문 3문단에서 설명하는 헤징의 두 가지 주요 유형, 즉 '내부적 관리 중심의 헤징'(네팅)과 '파생 상품 계약을 통하는 헤징'(선물환 계약)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에게 다양한 환위험 관리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③ (적절한 의견) <보기>의 제2조 3항이 선물환 계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지문 4문단에서 언급된 것처럼 "외부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 즉 계약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계약 불이행 책임"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④ (적절하지 않은 의견) <보기>의 제2조 4항은 "일시적 손실을 입은 기업에 긴급 운영 자금 저리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기업이 입은 "모든 환차손을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저리 융자'는 대출 지원이지 손실의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기업의 헤징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고 단정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제1조: 관리 능력 향상 지원)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은 <보기>의 내용을 왜곡 해석하고, 지문 전체에서 강조하는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간과한 부적절한 검토 의견이다.

⑤ (적절한 의견) <보기>의 제2조 4항과 같은 사후적 유동성 지원도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지문 전체(특히 1, 2, 3문단)에서 강

조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능력이다. 또한 5문단에서 언급된 제3자의 시장 교란 행위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까지 고려한 견고한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견이다.